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 주 연*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정 혜 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기혼자녀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밝힘으로써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 향상과 성인자녀의 건강한 부부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둘째로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셋째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며 노부모(남편은 자신의 친부모, 부인은 시부모)가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부부 259쌍으로, 본 연구자료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 노부모 부양부담은 부인이 남편 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았으나 죄책감은 남편이 더 높았으며,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결과, 동·별거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은 남편과 부인 모두 동거집단이 별거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노부모 경제능력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은 노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부에게 전적 의존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았고,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부인 모두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더 낮았다. 둘째,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은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결혼만족도는 노부모 부양부담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세대간 결속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셋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편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부양부담 하위변인인 긴장감이 적을수록, 노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부담 하위변인인 긴장감을 적게 느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양부담 하위변인인 긴장감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세대간 결속보다 노부모 부양부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관련되어 있고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인 긴장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와 노부모의 관계가 인생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된다는 점을 볼 때, 만족스런 부부관계와 노부모와의 세대간 관계를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부모 부양부담 측면에 더 초점을 두어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극소화할 수 있는 대안 책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